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매력적인 헤어스타일 처럼 매력적인 영혼이고 싶다면  
 전문가이신 주님께 맡겨주세요.

[제 1독서] 집회 3, 17-18, 20, 28-29

[화답송] 시편 68(67), 4와 5ㄱ-6-7ㄱ-10-11(© 11ㄴ-참조)

-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제 2독서] 히브 12, 18-19, 22-24

[복음 환호송] 마태 11, 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복음] 루카 14, 1-14

성가	8시 미사	입당 49	봉헌 주님 믿나이다	성체 180 153	파견 283
	11시 미사	입당 49	봉헌 주님 믿나이다	성체 180 153	파견 283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22주일(9월 1일)		연중 제 23주일(9월 8일)		연중 제 24주일/한가위(9월 15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황테레사(혜정)	김글라라(순희)	허세실리아(홍숙)	이바로로(명국)	전베로니카(진영)
제 1 독서	김안드레아(찬곤)	이레이몬드(창용)	이바로로(명국)	김길베르토(광호)	강요한(신호)	허라우렌시오(순구)
제 2 독서	김글라라(순희)	이베로니카(경란)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김안젤라(영선)	허파비올라(옥진)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지난 주 복음에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몸을 낮추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루카14,11)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시게 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윗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들려주신 충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치에 딱 맞는 훌륭한 말씀이지만 현실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다보니 모두들 윗자리에 앉아서 품 나게 살고 싶어 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렇지만 겸손은 우리 삶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당장은 자기를 과시하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존중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결국에는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묵묵히 겸손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겸손이 승리한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가 지은 준주성범에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평화가 있으나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분노와 질투심이 자주 일어난다.” (준주1권7,3)고 쓰여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롭고 행복하지만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불안하고 분열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덕목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겸손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집회3,18) 겸손은 하느님의 오묘함을 볼 수 있는 필수조건이며,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복음의 후반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루카14,13)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느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은 “자신을 낮추는 삶” 바로 겸손한 삶이라고 일러줍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겸손한 사람보다는 교만한 사람이 더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나부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천국의 열쇠

조선 시대의 순교자 황일광 시몬(1757~1802년)은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자가 된 후에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 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신분의 벽이 높았던 당시, 사회에서 천민인 자신을 형제처럼 여겨주는 신자 공동체를 지상의 천국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서 거기에는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니다.” (제2독서) 하느님을 직접 뵈고 예수님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면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은 죽음 다음에 가는 곳이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 교회와 함께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애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미사와 다른 성사들을 통해 필요한 은총을 선사해 주시며, 신자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에 함께 계십니다. 교회가 예수님과의 친교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의 씨앗이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를 황일광 순교자처럼 지상의 천국으로 느끼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처럼 보잘것없는 이들을 감싸 안고 보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속의 논리에 편승하여 크고 화려하고 힘센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낮아지셨는데, 잔치 석상에서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던 이들처럼(복음) 자리다툼을 하고, 위상 높이기엔 연연하지는 않는지요? 인류의 원조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려는 욕심’ (창세 3,5 참조) 때문에 순명하지 않아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교만은 천국 문을 달아가는 빗장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겸손은 하느님의 큰 권능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제1독서)이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일꾼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모두 각자의 처지에 맞게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교회는 천국의 맛과 분위기를 낼 것입니다.

현대에는 자신을 앞세우고, 자아실현과 개인의 자유를 거의 절대시하는 풍조가 매우 강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과 영광을 우선시하는 겸손은 남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순교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위해 재산과 명예는 물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은 세속의 기준으로는 정말 바보 같은 길이었지만, 실상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고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겸손이 천국의 열쇠다!’ 그 열쇠를 받아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 9월의 성인/성녀 \***

한국의 103위 순교성인/성녀.

고르넬리오, 다미아노, 마태오, 모세, 마테르노, 비오(사제), 세바스티아나, 안나, 여호수아, 요나, 즈카르야

**\*\* 성녀 김효임 골롬바와 김효주 아네스 \*\***

성녀 김효임 골롬바와 김효주 아네스는 서울 밤섬이라는 마을에 사는 부유한 어느 외인 부모한테서 태어났다. 효임은 6남매 중 둘째, 넷째가 효주 아네스였다. 다섯째가 클라라이다. 이 셋은 동정을 지켰었다. 효임이 동생 효주와 함께 포장 앞에 끌려 나갔을 때 일화이다. 포장은 물었다.

“너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니 그것이 참말이야?” 하고 묻는 포장에게 효임은 답하였다. “관장께서 말씀하시는 제사는 헛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욕에 갈려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생일이나 무슨 명절을 당하여 아무리 자식들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청한 다 할지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욕에서 나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지옥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나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효임은 조심성 있고 재간 있는 말로 재판관들을 놀라게 하였다.

효주 아네스는 1839년 9월 3일, 24세의 나이로, 효임 골롬바는 1839년 9월 26일 같은 날을 받고 동정으로 26세의 나이로 순교 하였다. 두 자매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h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말씀의 향기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2년 전이었던 1950년 7월. 우리 가족은 출애굽(出埃及)을 단행하였습니다. 모세였던 엄마의 지휘 하에 큰 누이를 비롯한 여섯 가족은 숨어 지내고 있던 아버지를 찾아서 청계산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섯 살의 어린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난 출애굽처럼 불과 며칠 동안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40년의 고난과 맞먹을 수 있는 그 숨 막히는 탈출과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는 것은 훗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아니었지만, 다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마흔 살 초반의 엄마가 스무 살의 다 큰 처녀에서부터 이제 겨우 두 살의 젖먹이까지 거느리고 나룻배를 구해 도강에 성공한 것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펼쳐 물을 가르' 모세의 기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강을 건너자 짐을 실은 수레바퀴는 모래사장에 빠져서 움푹달락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 살의 저까지 수레에 달라붙어 온 가족이 비 오는 모래밭을 간신히 벗어 나자 곧 어둠이 내렸습니다.

피난 가고 없는 빈집에서 엄마는 우리를 위해 밥을 짓고 모기장을 쳤습니다. 하룻밤 잔 곳은 누에를 기르던 양잠실이었는데, 사방에 누에가 죽어있어 싸락눈이 내린 듯 하였고,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씹씹이 소리가 나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쿠앙쿠앙 폭음소리가 나듯 저는 내일이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켄터키 옛집의 검둥이처럼 마루를 구르며 세상모르고 잤습니다.

다음날 일찍 아버지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아아, 그 무덤덤 긴 여름날. 햇살은 눈부셨고 길은 가도 가도 끝없이 옥양목의 빨래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위를 먹어 배는 남산만큼 튀어나왔고 머리에는 헌데가 나서 견딜 수 없이 아팠지만 저는 뒹뒹 오뎅이처럼 걸었습니다. 한 고개를 넘으면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아버지가 있다.” 이 말 한마디면 다섯 살의 어린이였지만 저는 별떡별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데 더위쯤 대수랴. 물렸거라, 대갈장군(어릴 적의 제 별명입니다.) 나가신다. 휘이휘이 물렸거라. 골목대장 나가신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신분을 숨기고 전란을 피해 미리 피난 와 수영을 기르고 밀짚모자를 쓴 농군 모습의 아버지가 성황당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미친 듯이 뛰어나와 맞아주던 모습을. 저를 행가래 쳐서 하늘

에 번쩍 들어 올렸다가 부동켜안던 그 우주와 같던 품속을.

그렇게 우리 가족의 출애굽은 끝이 났고 그해 여름 한철을 청계산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요즈음 저의 화두는 바로 이 다섯 살 때의 기억입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로 무더위와 부스럼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도 없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고개 하나 넘으면 아버지가 있다는 말 한마디만이 생명이요, 힘이요,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고갯길 저 너머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하시는 영혼의 하느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순일곱의 어른인 저는 다섯 살의 어릴 때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미혹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질 못할 것이다.” (마태 18,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순일곱의 저는 훨씬 지혜롭고 똑똑해질지는 모르지만 다섯 살의 철부지였던 그때의 저보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워즈워스의 시 “무지개” 처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오니 주님, 저를 다시 한 번 물과 성령으로 단순하고 순진한 ‘어린이와 같은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최인호베드로 | 작가

**\* 9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

**일반 : 침묵의 가치**

온갖 소음에 뒤덮여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침묵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하느님과 형제자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도록 기도합니다.

## 가톨릭전례 공동선이란 무엇이며,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온 세상의 물은 순리에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 갑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삶의 목적지인 하느님을 향해 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인간은 혼자서 생존할 수는 있으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회를 형성합니다.

사회생활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인 요구입니다. 사회 안에서 사람은 주어진 재능을 키우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류의 사명은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성부의 외아들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877항)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 일치하는 데에도 평생이 걸리는데, 거대한 사회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수학에서 서로 다른 분수가 하나의 수로 통합될 수 있는 이유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이 보여주는 다양함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각양각색이지만, 서로가 일치할 수 있는 공통분모는 우리 모두가 최종 종착지인 하느님을 향해 가는 ‘인간’이란 사실에 있습니다.

굶주림의 허기를 느껴본 사람은 이웃의 배고픔을 잊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가슴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은 같은 슬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인간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의 일치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오직 나만의 기쁨도, 너만의 이익도 아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공동선입니다.

공동선은 인간의 존엄성에 뿌리를 두고 사회의 안녕과 발전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907-1909항 참조) 인간 사회는 행복의 항구를 찾아 거친 바다를 향해하고 있는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그 배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등 모든 인간을 태우고 갑니다. 바다에 항상 파도가 일듯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물질주의의 바람은 거세고 쾌락주의의 파도는 높아만 갑니다. 폭풍우의 시련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힘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구명조끼를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항로 잃은 배는 침몰할 것이며, 침몰은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늘 나라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어 그것들마저 복종케 하는 예수님께서 같은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루카 8,24-25 참조)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실천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한 인간은 영적이고 세속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차원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사회적 계명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길이 공동선입니다. 사랑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진리에 바탕을 둔 공동선은 이 세상에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줄 전령사입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겸허함을 바탕으로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로마 12,10)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1877-1917항

사목국 연구실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92	190	39	321
헌 금	\$607	\$1,218	\$47	\$1,872

< 교무금 > \$1,715

정병섭(7-9) 양인심(8-9) 최환준(7-8) 허은석(7-8)  
 팽현팔(8-9) 윤성진(7) 김영자(8) 박호영(9)

< 성소후원금 > \$60

허은석(7-8) 박호영(9)

< Bishop's Appeal > \$1,730

정병섭(1-12) 김원조(7-12) 허은석(7-12)  
 김민규(1-12) 원광희(1-12) 이종규(1-12)  
 채성일(1-12)

< 감사헌금 > 노에드워드 가정 \$500

\* 노에드워드 가정에서 선종봉사회에 \$2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 목표액 \$48,000
- \* 총 약정 \$55,550
- \* 총 납입 \$54,6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 약정액 \$311,015.28 (185 세대 약정)
- \* 봉헌액 \$291,545.28

날짜	지 향	봉 헌 자
9월 1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정바오로(성헌)	자녀
	생 김케넷(관용)	김엘리사벳
	생 유케빈	유데레사
	생 꾸르실료기도해주신분	최분다(수영)
	생 이정우	전수산나
	생 김로사리아(경숙)	강도밍고
9월 3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김도미딜라(경수)	전수산나
9월 4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생 김그레고리오(준호)	전수산나
	생 이도현 학업발전	황안나
	생 서베로니카 생일	서데레사
9월 5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들	선종봉사회
	생 유리디아(윤미)	전수산나
9월 6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메체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9월 7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연 박요한보스코(명석)	가족
	연 메체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이마리아(수영)	이엘리사벳
	생 꾸리아올레회	꾸리아

~~~~ 오늘 간식은 조마리아/장루시아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양 -

- ◆ 여행자를 위한 안수기도 : 오늘 미사 중
- ◆ 전례안내  
9월 5일(목) : 성시간  
9월 7일(토) : 성모성심미사(꾸리아월례회)
- ◆ 지속적인 성체조배  
9월 6일(금) 저녁 9시부터 9월 7일(토) 아침 7시까지
- ◆ 추석합동위령미사 안내 : 9월 15일 교중미사
- ◆ 2차 헌금  
9월 15일 Holy Father 를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마리아회 : 9월 1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구역장회의 : 9월 8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하상회 : 9월 8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독서 클럽 모임  
9월 8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3호실  
- 9월 도서 : 길에서 길을 찾다(문재상 지음)
- ◆ 주일학교 학부모 피정  
일시 : 9월 8일(다음주) 오후 1시 반  
장소 : 성당(점심/베이비시팅 제공)  
지도 : 본당 신부님  
접수 : 친교실
- ◆ 성서모임 오리엔테이션
  - 창세기 반 오리엔테이션 :  
9월 10일(화) 미사 후 친교실
  - 탈출기 반 오리엔테이션 :  
9월 12일(목) 미사 후 사제관 앞 회의실

|                |             |                  |
|----------------|-------------|------------------|
| <b>8월 구역모임</b> |             | <b>필리피서 3-4장</b> |
| 8-1구역          | 9월 1일(일) 1시 | 교육관 107호실        |

- ◆ 뜨락회 피정  
일시 : 9월 14일(토) 오전 8시반 - 오후 6시반(점심제공)  
장소 : Vallombrosa center, Menlo Park  
주제 : 나를 찾아서  
지도 : 본당신부님
- ◆ 본당 창립 29주년 기념 및 장학 기금 모금 골프대회  
일시 : 10월 5일(토) 오후 1시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Oakland)  
참가비 : 남성 \$100, 여성 \$80  
- 그린피, 카트비, 기념품 및 저녁식사 포함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 ◆ 새로 오신 분  
9 구역 : 김애자 아가다/정소민 만나 가정  
뜨락회 : 이나은 비비안나

**주일학교 미사 : 11시 친교실**  
**주일학교 계약 : 9월 8일**  
**주일학교 등록 : 친교실**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3-2014)**

- 9월 7일 : 개강(수업시간 9시 40분 ~ 12시 50분)
- 9월 14일 : 추석행사  
(송편빚기, 소고춤 배우기, 추석놀이 등)
- 9월 21일 : 교내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 10월 5일 : 북가주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